

박현일의 색채 인문학 249 회색과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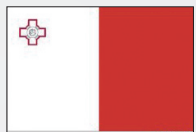
브라질, 무채색인 ‘은색과 회색’ 인기

●러시아

미국에 본사를 둔 자동차 코팅제 생산업체인 듀폰은 ‘2008 듀폰 글로벌 자동차 색상 인기도 리포트’를 발표했는데, 러시아에서는 은색이 30%로 선두를 차지했다.

러시아에서 ‘파란 성격’의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이며, 가장 아름다운 눈동자의 색으로는 회색을 의미한다.

●몰타



몰타의 국기(사진)는 1964년에 제정되었으며, 국기에 사용된 색으로는 하양과 빨강 그리고 회색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십자가도 있다.

회색 십자가는 1943년 제2차 세계 대전 중 당시 영국의 국왕이었던 조지 6세가 몰타인들에게 수여했던 세인트 조지 훈장이다.

회색 십자는 성조기의 십자를 상징한다.

●미국

리처드 웨다(Richard Weda) 박사는 미국인들의 자동차 선호 색을 연구하였다. 미국에서 소형차의 색으로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연한 황토색, 하얀색, 하늘색, 진한 파란색 순이다. 중대형 차의 경우에는 연한 황토색, 하얀색, 진한 파란색, 하늘색 그리고 회색을 띤 은색을 가장 선호한다.

미국에 본사를 둔 자동차 코팅제 생산업체인 듀폰은 ‘2008 듀폰 글로벌 자동차 색상 인기도 리포트’를 발표했는데, 북미에서는 검은색과 은색이 17%로 나란히 2위를 차지했다.

●브라질

미국에 본사를 둔 자동차 코팅제 생산업체인 듀폰은 ‘2008 듀폰 글로벌 자동차 색상 인기도 리포트’를 발표했는데, 브라질에서는 은색(1위)과 회색(3위)의 무채색이 인기를 끌었다.

●아르헨티나

고대 신들의 세계에서 거인 아르고스(Argus)는 은에서 유래를 얻었

다. 은은 라틴어로 아르겐툼(argentum), 그리스어로 아르기로스(argyros)이다. 1516년 스페인인들은 남미 해안을 따라 금과 은을 찾았으며, 보물을 인도해 준 강을 ‘은의 강(Rio de la plata)’ 또는 은의 강의 나라’라고 불렀다. 300년 동안 스페인 통치를 받던 그들은 프랑스의 도움으로 독립을 쟁취하여 아르헨티나가 탄생했다.

●영국

영국에서는 부유한 부모를 둔 자녀를 보고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라고 말한다.

19세기 모든 여성의 패션은 파리에서 탄생했지만, 남성의 패션은 영국이 지배적이었다.

빅토리아 시대의 남성 정장은 오늘날까지 거의 변하지 않은 채 전형적인 남성 복으로 남았다.

문화예술 기획자/ 철학박사·미학전공



어른들의 ‘책임’과 ‘관심’이 필요한 “지금”

기고

황세은

전남북부권아동보호
전문기관 팀장

냉장고 영아 방치사건, 출생 미등록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 이슈가 끊이지 않던 2023년이 지나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정부 관계부처의 다양한 대책 방안들이 실현되고 있는 2024년이지만 여전히 뉴스에서는 아동 매매 사건, 아동 사망 사건 등 아동학대가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정부는 2019년 포용 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고 그동안 민간 기관이 가지고 있던 아동학대 조사권을 2023년 9월까지 공공으로 전환하기 위해 갖은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필자는 조사 공공화가 종료되고 안정기를 찾아야하는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아동 보호체계가 필요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 45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학대 피해아동과 사례관리대상자(구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진행하며 심리·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고 재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군구별 배치해야 하나 2023년 전국 243개 시군구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된 지역은 89개에 그친다.

전남도는 22개 시군에 5개소의 아동 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어 한 기관당 4~5개의 시군구를 관할하고 있으며

필자가 근무하는 곳에서도 관할구역인 곡성군에 거주하는 아동을 만나러 가기 위해 왕복 120km, 이동시간이 약 두 시간에 달하는 등 물리적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평균 사례관리 수는 64건으로 복지부에서 권고하는 수인 32건 보다 2배에 달하고 있어 효과적인 심층사례관리와 촘촘한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추가 설치가 시급하다.

둘째, 아동학대 예방 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아동정책은 아동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금까지 많은 아동들의 희생을 통해 변화되어 왔다. 그간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는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에 한해서만 개입이 되고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2일 ‘2024년 아동학대 예방 조기지원 시범사업’을 실행할 지자체 20곳을 선정하였고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을 선별하여 신체·심리·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향후 아동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발생 위험요인이 있는 가정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잠재적인 아동학대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첫 번째 시스템이 구축된 셈이다. 이처럼 더 이상 아동들의 희생을 통한 변화가 아닌 아동학대에 대한 사전 개입을 통해 잠재적인 아동학대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 등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셋째, 아동학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복지부에서 발간한 ‘2022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신고 접수

건은 총 4만6103건으로 2021년 5만3932건 보다 7829건이 감소했다. 단순 숫자로 보았을 때 ‘신고 건 수가 줄었으니 아동학대가 많이 없어졌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난 10여 년간 지속 증가해 가던 아동학대 신고율에 급브레이크가 걸린 현상은 우리에게 아동보호 체계를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할 시점임을 알려준다. 아동인구 1000명당 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 수를 뜻하는 ‘아동학대 발견율’을 살펴보면 2019년 3.81%(% : 인구 1000명당 한 명 단위), 2020년 4.02%, 2021년 5.02%으로 꾸준히 증가해오던 발견율이 한순간에 4년 전 수준인 3.85%로 떨어졌다. 아동보호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는 미국의 아동학대 발견율은 8.1%, 호주는 12.4%임을 비교했을 때 현저히 차이가 난다. 과거 다양한 연구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 인식이 높을수록 아동학대 발견율 또한 높아진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우리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인지한 즉시 신고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나 학대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망설이는 찰나, 도움이 필요한 우리 아이를 놓칠 수 있음을 상기하며 더 이상 아동학대가 은폐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 과제들도 아직 남아 있다.

지금이야말로 아동학대를 더 이상 정부의 일로 미루는 것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변을 살펴보고 위험에 처한 아이들에게 도움이 손길을 건네주어야 하는, 어른들의 ‘책임’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살아나라 총장로여

취재수첩

송민섭

취재2부 기자

minsub.song@jnilbo.com



‘우다방’과 ‘총파’는 광주사람들이 오래된 인연을 떠올리며 추억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상징이다. ‘우다방’은 총장로 1가 2가의 경계에 있는 광주우체국, 그리고 ‘총파’는 총장로 3가와 중앙로가 만나는 모퉁이에 있는 총장로 파출소의 줄임말이다. 친구들과 당구 한게임, 노래방에서 노래 한 곡, 점심 한 끼를 먹으려면 일단 ‘총파’로 모였다. 그래서 붙여진 별칭이 ‘약속의 장소’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만나는 장소라는 뜻이다. 현재 총장 파출소는 ‘총장 치안센터’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광주 사람들은 총파라고 하면 알아듣는다.

옛 명성은 잊혀지고 총장로는 금세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금남로·총장로 공실은 지난해 4분기 28.0%에서 31.0%로 3%포인트 늘며 30%대 벽이 무너졌다. 가게 세곳 중 한곳은 문을 닫았다는 뜻이다. 공실률이 늘면서 언론에서는 총장로의 적나라한 현실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침체의 그늘이 드리우고 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손님들이 없자 문을 닫는 점포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2011년 문을 열었던 ‘스타벅스 광주 총장로점’은 2022년 문을 닫았다. 지역민들에게 ‘만남의 장소’로 통했던 총장 파출소 부근에 위치한 총장로점은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경영난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총장로에 문을 연 ‘H&

M 와이즈파크몰’도 지난해 말 영업을 종료했다.

부정적인 시선이 팽배했지만 최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총장로를 품고 있는 광주 동구는 상권을 살리기 위해 간간히 을 쓰고 있다. 동구는 최근 카카오톡과 협업해 총장로 상권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이다. 카카오톡이 직접 소상공인들에게 디지털 교육과 비즈니스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위축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축제와 체험 프로그램 등도 꾸준히 열고 있다.

관의 노력에 힘 입어 민간에서도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달에 문을 연 가방 편집숍(한 매장에 2개 이상의 가방 브랜드 제품을 모아 판매하는 매장) ‘웨하스 총장’, 나이트클럽 개장, 와이즈파크 건물 리모델링 등 민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신규 점포들의 입점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총장로의 변화는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을 끌어들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통해 재도약을 꿈꾸는 총장로는,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와 상업의 중심지로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지속된다면, 총장로는 다시 한 번 많은 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약속의 장소’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의 노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광주 동구와 지역 상인들의 협력은 물론, 총장로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모여, 총장로가 다시금 생기를 되찾고, 새로운 명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일확천금 유혹 투자 리딩방 실체

발언대

김덕형

무안경찰서 몽탄치안
센터장·경감

우리사회 20대~30대를 중심으로 한 주식 재테크 열풍이 거센 가운데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원금과 최소 000% 이상 수익률 보장 같은 허위 과장 주식이나 코인 광고에 속아 큰 돈을 투자하였다가 낭패를 보는 신종 투자 리딩방 사기범죄가 등장해 구독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투자 리딩방이라 함은 전화나 SNS를 통해 개인에게 특정 주식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매 시점을 알려주는 대화방을 일컫는다.

정작 문제는 일부 투자 리딩방에서 유명 투자회사 대표를 사칭해 특정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를 하면 고 수익률을 보장한다거나 투자 손실을 입더라도 무조건 보전해 준다는 식의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투자회원을 모집해 놓고 정작 투자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투자금을 가로채고 사라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디 이뿐이랴.

더욱이 우리에게 허를 대두를만한 것은 일부 리딩방의 경우 유명 연예인 사진을 무단 도용해 주식 리딩방 투자 권유를 하는가 하면 투자자 자금을 동원해 특정 종목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하는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일부 리딩방의 경우 고 수익을 인증하는 수십개의 메시지를 리딩방에 올리는 바람잡이도 있어 경험이 거의 없는 초보 투자자가 혹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이처럼 일부 투자 리딩방은 피해자들과 주로 SNS를 통해 연락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비상장 주식과 코인 등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바로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허무맹랑한 현혹을 통해 회원들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고 한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투자리딩방 사기 건수는 2023년 10~12월 기준 1177건에 피해액은 자그만치 890억원에 달하는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어렵사리 모은 피같은 내돈을 검은 유혹의 손길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투자에 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주식, 코인 등의 투자 리딩방에 투자를 하기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투자회사인지 반드시 확인(fine.fss.or.kr)해 볼 필요가 있고 고수익 투자는 사실인지 여부도 꼼꼼히 챙겨 확인을 해 봐야 한다. 물론 가급적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해 투자하는 방법도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한 방편이 될 것이다. 투자 리딩 사기 수법 역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만큼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까지 낼 수 있는 금융 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이순간 나에게 접근해 오는 고수익 투자를 권유 리딩방이 투자 사기는 아닌지 의심하고 불일이다.